

교류(交流)하지 못하는 북·중 문화

- 2006년 이후 예술영화 교류를 중심으로 -*

김성은 (동국대학교)

국문요약

북한 예술영화는 1970년대에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지만, 그 인기는 문화대혁명 시기 양국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비롯된 예외적인 것이었다. 오늘날 북·중 문화 교류는 영화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문화 교류도 증대하고 있다는 주장과, 중국 문화산업의 발달로 교류가 예전만 못하다는 주장이 대립된다.

이 연구에서는 2006년 이후 예술영화 교류를 중심으로 북·중 문화 교류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시기에 북한 영화 제작은 유례없이 침체된 반면, 중국 영화산업은 크게 발달하였다. 이처럼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영화 교류는 양국의 기념일이나 외교 행사에서 옛날 영화를 상영하는 관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낙후된 북한 영화에 관심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늘날 중국의 대중에게는 전통적 우호 관계인 북한의 영화보다 미국 영화가 훨씬 친근하고 익숙한 상황이다. 북·중 영화 교류는 앞으로 형식적으로 지속되었지만, 교류의 비대칭성이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주제어: 북·중 문화 교류, 북·중 영화 교류, 북한 예술영화, 중국 영화산업, 교류의 비대칭성.

* 이 논문은 2016년 서울대학교 교내연구과제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0563-20160001).

I. 서론

같은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한 다이시지에(戴思杰)의 소설 『발자크와 바느질하는 중국소녀(巴尔扎克和小裁缝)』(2000)에는 문화대혁명 때 시골로 하방(下方)된 두 젊은이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마을 촌장의 명령으로 도시에 가서 영화를 보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는 역할을 맡았는데, 도시에서나 마을에서나 가장 인기 있는 영화는 북한 영화 <꽃 파는 처녀(卖花姑娘)>(1972)였다. 이야기로 들었을 뿐인데도 마을 사람들은 눈물을 펴펴 쏟고 만다.

1946년에 발족한 북조선가극단은 1971년에 혁명가극 ‘피바다’ 창작을 계기로 피바다가극단으로 개칭되었고, 이듬해인 1972년에 가극 ‘꽃 파는 처녀’를 무대에 올렸다. 이 가극은 같은 해에 영화로 제작되었는데, 가극과 영화 모두 북한의 공식 예술사에서 혁명예술에 새로운 시대를 연 작품으로 기록되고 있다. 가극 ‘꽃 파는 처녀’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1,400회 이상 공연되었으며, 영화 <꽃 파는 처녀>는 오늘날에도 중국의 대중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북한 영화로 남아 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이 가극과 영화를 ‘최초의 한류’로 평가하기도 한다¹⁾

‘꽃 파는 처녀’의 인기는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 피바다가극단은 2008년 4월 11일부터 6월 3일까지, 2012년 5월 28일에서 7월 30일까지 가극 ‘꽃 파는 처녀’ 중국 순회공연을 진행하였다. 영화 <꽃 파는 처녀> 역시 중국에서 ‘조선영화 상영주간’ 행사가 개최될 때마다 빠지는 법이 없으며, 2012년 10월 23일에서 27일까지 연변에서 열린 상영회에서도 “세월의 변천과 상관없이 여전히 감동 그 자체”라는 관객 평을 받기도 했다.²⁾

1) 권현익 · 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파주: 창비, 2013), p. 77.

그러나 과거 중국에서 북한 영화가 누렸던 인기와 현재의 인기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1970년대에는 <꽃 파는 처녀> 외에도 <사과 딸 때(摘苹果的时候)>(1971), <금희와 은희의 운명(金姬和银姬的命运)>(1975) 등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누렸지만, 이러한 인기는 문화대혁명(1966~1976년) 말기와 직후라는 특정 시기, 특정한 상황에서 비롯된 예외적인 것이었다. 1965~1969년은 북·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시기였으며, 1970년 이후 양국의 갈등이 해소되면서 문화 교류가 본격화되었다.³⁾ 1966년 말부터 1973년 초까지 약 7년 동안 단 한 편의 영화도 제작할 수 없었던 문화 공백기를 지내며 거친 선전선동 예술에 지쳐있던 중국인들은 북한의 가극과 영화를 보며 훈훈한 감성을 느꼈다.

북한과 중국은 ‘북·중 경계 및 문화협력 협정’(1953년 11월), ‘북·중 문화협력 협정’(1959년 2월) 등을 통해 우호협력을 위한 문화 교류를 제도화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양국의 문화 교류는 체제의 특성상 정부에 의해 정책적으로 진행되는 성격이 강하다. 냉전과 탈냉전을 거치며 양국이 수시로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문화 교류 역시 부침을 거듭했다. 그러나 문화 교류가 양국의 정치적 관계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과 중국은 갈등이 심할 때에도 최소한의 관계 유지를 위해서, 혹은 관계 회복을 위해 문화 교류를 지속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중국이 북한을 혈맹 관계가 아닌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추세에서 문화 교류의 자율성이 다소 증대된 측면도 있다.

2) “<꽃 파는 처녀> 다시 봐도 눈물바다,” 『길림신문』, 2012년 10월 26일.

3) 문화대혁명 시기는 북·중 관계의 하한선이었다. 북한의 주체를 인정한 류사오치(刘少奇)가 타도 대상이었고, 홍위병들은 김일성을 수정주의자라고 비난했다. 마오쩌둥(毛泽东)과 김일성의 화해는 1970년 10월 김일성의 베이징 비밀 방문에서 이루어졌다(최명해, “1960년대 북한의 대중국 동맹디레마와 ‘계산된 모험주의’” 『국제정치논총』, 제48집 3호, 2008, p. 142; 히라이와 순지, 『북한·중국관계 60년: ‘순치관계’의 구조와 변용』, 선인, 2013, pp. 185~186.

그러므로 2000년대 이후 북한과 중국의 문화 교류 양상은 1970년대보다 훨씬 복잡하다. 우선 중국의 경제와 문화산업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북한 영화나 북한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관심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 홍콩, 대만과 더불어 중국 대륙 영화가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세계 영화시장에서 미국 영화와 경쟁하는 시대에 더 이상 〈꽃파는 처녀〉를 보면서 눈물 흘릴 관객이 없다는 것이다. 그나마 60~70대 노인들이 추억에 젖어 북한 가극을 관람하기는 하지만, 막상 극을 보면서 옛날과 같은 감동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2008년에 베이징 국가대극원에서 가극 ‘꽃 파는 처녀’를 관람한 70대 노인은 “중국은 정신 없이 변하고 있는데, 북한은 예전 그대로 서 있는 것 같다.”는 평을 남기기도 했다.⁴⁾

한편 중국에 대한 북한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문화 교류도 증대하고 있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북한의 정권수립기부터 1950년대 중반까지 대외 문화 교류의 중심은 소련이었지만, 1990년대 이후 북·중 문화 교류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⁵⁾ 2010년에 항미원조 6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 〈형제의 정〉이 북한에서 제작되었고, 2012년에 최초의 북·중 합작영화인 〈평양에서의 약속(平陽之約)〉이 제작된 것도 이러한 평가를 뒷받침한다.

그런데 북·중 문화 교류가 과거만 못하다는 주장이나 문화 교류가 증대하고 있다는 주장이나 몇 가지 사례를 예로 들 뿐, 문화 교류의 폭이나 깊이가 실제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중 문화 교류에 대한 선행연구들⁶⁾은 주로 공연예술에 관한

4) “눈물 없는 베이징의 ‘꽃 파는 처녀’” 『경향신문』, 2008년 4월 16일.

5) 전영선·김지니, “북한의 대외문화교류 정책과 북·중 문화 교류,” 『중소연구』, 118호 (2008).

6) 전영선·김지니, 위의 글; 신형욱·김용범, “북·중 문화교류를 통해 본 현 단계

것이어서 다른 분야의 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는 2006년 이후 예술영화 교류를 중심으로 북·중 문화 교류의 달라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2006년 이후로 시기를 한정된 것은 북한 영화에 대한 연구들이 대체로 2007년 무렵에 멈춰 있는 사정을 고려한 것이다.

II. 북한 영화의 침체기

2006년 이후 제작된 북한 예술영화 중에 국제적으로 알려진 영화는 <평양날파람>(2006), <한 녀학생의 일기>(2006), <소원>(2011),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2012), <평양에서의 약속>(2012) 등이다. <한 녀학생의 일기>는 2007년에 북한 영화 최초로 칸영화제에 출품되었고,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는 2012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평양에서의 약속>은 2012년 광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었다.

이처럼 주목할 만한 성과가 몇 편 있긴 했지만, 2006년 이후 북한 예술영화의 현황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침체기’라고 할 수 있다. 경제난 등으로 영화 제작에 큰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에는 제작 편수가 더욱 감소했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제작된 북한 예술영화 중 『조선중앙년감』, 월간 『조선예술』에 소개된 영화의 목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연감과 잡지에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영화가 있을 수 있

남북한 문화교류의 진단과 평가: 단일 극 양식의 공연예술 교류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2호 (2011) 등.

7) 최척호, 『북한 영화사』 (서울: 집문당, 2000); 민병욱, 『북한 영화의 역사적 이해』 (서울: 역락, 2005); 이명자, 『북한 영화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안지영, “북한 영화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27권 1호 (2015) 등.

으므로 전체 제작 편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표 1〉 2006~2014년에 제작된 북한 예술영화

연도	영화 제목	편수
2006	〈평양날과팸〉, 〈한 녀학생의 일기〉, 〈높은 교단〉, 〈젊은 려단장〉 1, 2부, 〈그가 남긴 사진〉	5
2007	〈강호영〉	1
2008	〈우리를 지켜보라〉, 〈군항의 부름소리〉, 〈그날의 중위〉, 〈저 하늘의 연〉, 〈정든 나의 집〉, 〈병사의 모습〉	6
2009	〈내가 본 나라〉 2, 3부, 〈백옥〉 1, 2부, 〈백두의 붓나무〉, 〈생명선〉, 〈훈련의 하루〉, 〈북두칠성〉, 〈조난〉, 〈가를 수 없는 정〉, 〈동해의 노래〉 1, 2부, 〈시대가 주는 이름〉	10
2010	〈해빛 밝아라〉 1, 2부, 〈내가 본 나라〉 4, 5부, 〈그는 탄부였다〉, 〈복 받은 대지에서〉, 〈행복의 수레바퀴〉, 〈형제의 정〉, 〈성강의 파도〉 1, 2부, 〈설풍경〉, 〈내가 사는 가정〉, 〈황철나무중대〉, 〈우리 정치지도원〉, 〈산촌에 피는 노을〉	12
2011	〈소원〉, 〈인민이 너를 아는가〉, 〈미결건은 없다〉, 〈눈속에 핀 꽃〉, 〈맹수사냥꾼〉, 〈우리의 래일은 푸르다〉, 〈분조의 주인〉, 〈귀한 손님〉, 〈명령은 무조건 관철해야 한다〉, 〈다시 만남시다〉	10
2012	〈들꽃소녀〉, 〈폭발물처리대원〉, 〈종군작곡가 김옥성〉 1, 2부, 〈평양에서의 약속〉, 〈김동무는 하늘을 난다〉	5
2013	〈최전연의 작은 집〉	1
2014	〈포성없는 전구〉 1~5부,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 1~3부	2

〈표 1〉을 보면 2007년과 2013년에 영화 제작이 특히 저조하다. 2007년의 경우 『조선중앙년감』에 예술영화가 한 편도 소개되지 않았고, 기록영화도 단 6편만 소개될 정도였다. 북한 영화는 ‘고난의 행군’ 종결을 선언한 2000년 무렵에 1980년대의 평균 제작 편수였던 한 해 25편 정도를 잠시 회복했으나, 2004년에 10편, 2005년에도 10편으로 줄었다.⁸⁾ 2006년에 제

8) 이명자, “북한영화,” 영화진흥위원회 편, 『한국영화연감 2007』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p. 150.

작된 <평양날파람>과 <한 녀학생의 일기>가 호평을 받고 큰 인기를 끌자 이들의 성공을 계기로 영화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그 후에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북한 당국은 영화 제작이 가장 좋았던 해를 1983년으로 보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영화의 위축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인정한 바 있다.⁹⁾

이명자는 2004년 이후 제작 편수 감소에 대해 경제난 외에도 두 가지 이유가 더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북한 영화계가 실리, 실용을 강조하면서 영화 제작의 책임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계획을 부풀려 예산을 타내는 행위를 규제하고 제작한 영화에 대해서는 경제적 책임을 지게 하여 영화 제작이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에서 영화보다 TV 드라마가 인기를 끄는 추세 때문이다. 북한에서는 영화 촬영소가 TV 드라마도 제작하는데, 영화 제작을 줄이는 대신 TV 드라마 제작을 늘리는 경향을 보였다.¹⁰⁾

한편 김정음이 집권한 2012년 이후 제작 편수의 급감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제기된다. 이우영은 다섯 가지 원인을 지적하는데, 첫째, 오랜 경제난으로 영화 제작의 물적 토대가 붕괴되었으며, 둘째, 전기 공급이 불안정하여 영화 관람 환경이 악화되었고, 셋째, 북한 주민들이 영화를 볼 때 VCR이나 CD-ROM을 활용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또한 넷째, 모란봉악단 등 ‘음악정치’의 대두로 정치적 선전선동의 대표 장르가 영화에서 음악으로 넘어갔으며, 다섯째, 김정일과 김정음의 문화 취향 차이도 영화 제작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¹¹⁾

9) “당 중앙위원·선전선동 담당 비서 김기남 연설,” 『로동신문』, 2014년 5월 17일.

10) 이명자, 앞의 책, pp. 150~151.

11) 이우영, “2014년 북한영화 개관,” 영화진흥위원회 편, 『한국영화연감 2015』(부산: 산지니, 2015), pp. 260~262.

Ⅲ. 2006년 이후 북·중 영화 교류 현황

1. 향미원조 기억의 재현

2000년대 이후 북한 영화가 1980년대에 비해서 훨씬 열악한 제작 환경에 처한 것은 북·중 영화 교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다. ‘향미원조 60주년’을 기념한 영화 <형제의 정>(2010)과 최초의 북·중 합작영화인 <평양에서의 약속>(2012)은 2006년 이후 북·중 영화 교류에서 특히 눈여겨볼 만한 사례다.

2010년 조선예술영화촬영소가 제작한 <형제의 정>은 북한과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 영웅으로 꼽히는 황계광의 일화를 영화화한 것이다. 영화문학은 김일성상 계관인 위웅용이, 연출은 공훈예술가 김춘송이 맡았다. 주인공 황계광 역을 권영태가 연기하고 그 외에도 러철, 리영호, 류경애, 고승룡 등 유명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였다. “이 영화를 중국 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돐에 드린다”는 자막과 함께 영화가 시작된다.

황계광(1931~1952)은 중국 사천성 출신의 빈민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인물이다. 1952년 10월 상감령 전투에서 자신의 몸으로 적의 기관총을 막고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둥(丹東)의 향미원조 전쟁기념관에 구소운과 함께 ‘특급영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강원도 고성군에는 황계광중학교가 있다. 영화 제목인 ‘형제의 정’은 극 중 황계광과 실존 인물이 아닌 동생 황계소의 우애를 가리키는 동시에 북한과 중국의 혈맹 관계를 상징한다. 황계광의 죽음 후 살아남은 동생 황계소가 노인이 되어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영화가 끝난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함께 북한을 방문한 황계소의 손녀가 묻는다. “우리 지원군 열사들은 중국 사람들인데, 왜 남의 땅에 와서 죽었나요?”

이 질문은 영화 초반부에 중국에 있는 북한 군인의 비석 앞에서 황계광이 던지는 질문과 겹친다.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여긴 남의 땅이 아니다. 형제의 나라란다” 하고 답한다. ‘피로 맺은 조종친선은 대를 이어 영원할 것이다’가 영화 전체의 주제로서 강조된다.

항미원조 60주년을 기념하는 영화에서 황계광 이야기를 다룬 것은 적절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혁명영화 〈상감령(上甘嶺)〉(1956) 역시 황계광의 희생에 대한 것이며, 이 영화의 주제곡인 ‘나의 조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개막식과 2011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만찬에서 연주될 정도로 대중에게 낯익다. 북한에서는 2010년 10월 25일 김정은이 참석한 군중대회에서 〈형제의 정〉 감상회가 열렸고, 황계광을 비롯한 중국 인민지원군 용사들의 빛나는 위훈을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다는 평을 받았다.¹²⁾

〈형제의 정〉은 항미원조 60주년이라는 국가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북한에서 제작된 영화이므로 중국의 일반 관객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이에 반해 최초의 북·중 합작영화인 〈평양에서의 약속〉은 중국의 영화 시장을 겨냥하여 제작된 상업 영화다. 중국 산시(山西)영화제작사가 1천만 위안(약 18억 원)을 투자하고 북한은 인력과 물자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작이 이루어졌다. 영화문학은 김춘원과 황단(중국), 연출은 김현철과 시얼자티 야하푸(중국)가 공동으로 맡았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와 중국 허난영화TV제작그룹유한공사가 함께 촬영했고, 출연진 역시 김은순 역의 김옥림, 왕쇼난 역의 류둥 등 북한과 중국의 배우를 어울렸다.

이 영화는 2012년 8월에 중국에서 개봉했지만 일주일도 못 되어 스크린에서 내려갔다. 중국 관객들에게 ‘국가 이미지 홍보 영화(國家形象片)’

12) 이명자, “2010년 북한영화 개관,” 영화진흥위원회 편, 『한국영화연감 2011』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p. 345.

로 비춰져서 흥행에 참패한 것이다.¹³⁾ 북한에서도 이 영화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조선중앙년감』과 월간 『조선예술』에서 중요한 작품으로 다루지 않고 간단한 소개에 그쳤다. 오히려 한국에서 화제가 되었는데, 2012년 11월 10~11일 광주국제영화제에서 두 차례 상영 모두 매진되었고 관객상에 선정되기도 했다. ‘아리랑’ 공연과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일부 내용 때문에 특수자료로 분류되어 비표를 발부하는 조건으로 간신히 상영 허가를 받았다.¹⁴⁾

조선무용을 전공한 중국 무용수가 열흘 간 북한을 방문하여 무용 교류하는 이야기가 영화의 주된 내용이다. 주인공 왕쇼난은 조선무용의 대가인 친할머니에게 혹평을 받자 조선무용을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해 북한에 오지만, 북한 무용수 김은순은 대집단 체조와 카드섹션으로 구성된 ‘아리랑’ 공연 연습만 계속 보여줄 뿐이다. 이 영화는 자신을 위한 무용과 전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집단 무용을 대조하면서 진실하고 소박한 마음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추는 춤이야말로 진정한 무용이라는 주제를 관객에게 전달한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60여 년 전의 항미원조 전쟁이다. 왕쇼난의 할머니는 한 귀퉁이가 찢어진 사진을 손녀에게 주며 북한에 가서 사진 속 인물을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알고 보니 왕쇼난의 할머니와 김은순의 스승은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고 항미원조 전쟁 후에 헤어진 친구 사이였던 것이다. 영화 후반부에는 실제 ‘아리랑’ 공연이 8분 정도 삽입되어 있는데, 사진 속 주인공을 찾는 영화의 내용과 더불어 공연 장면에서도 북한과 중국의 역사적인 친선 관계가 줄곧 강조된다.

13) “중국 관객이 등 돌린 영화지만… ‘아리랑’만 봐도 좋네,” 『오마이뉴스』, 2012년 9월 1일.

14) “북·중 합작영화 <평양에서의 약속> 매진,” 『연합뉴스』, 2012년 11월 12일.

2. 영화감상회를 통한 교류

항미원조 기억을 재현하는 영화 몇 편을 근거로 북한과 중국의 영화 교류가 활발해졌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다. 중국의 개방된 영화시장과 북한의 폐쇄적인 영화계가 동등한 입장에서 영화를 사고 팔 수는 없다. 북한에서는 주로 기념일 행사의 일환인 ‘영화감상회’를 통해서 중국 영화가 상영된다. 양국의 영화 교류에 있어서 중국에서 열리는 ‘조선영화 상영주간’과 북한에서 열리는 ‘중국영화 상영주간’이 가장 중요하고 큰 행사인 셈이다.

『조선중앙년감』의 기록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영화감상회를 비롯한 북·중 영화 교류 행사는 17회 정도였다.

2006년과 2007년에는 행사가 기록되지 않았다. ‘조중친선의 해’인 2009년과 ‘항미원조 60주년’인 2010년에 영화 교류가 비교적 활발했지만, 교예단, 가극단 공연, 미술 전시, 사진 전시 등에 비하면 영화감상회는 규모도 적고 횟수도 많지 않다. 북한의 예술영화 제작이 크게 위축되고 중국 대중에게 소개할 만한 영화가 마땅하지 않아 <꽃 파는 처녀>, <한 녀 학생의 일기> 등 몇 편의 영화가 ‘조선영화 주간’의 단골 레퍼토리로 상영되고 있다.

‘중국영화 주간’의 상영작들 역시 다양하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다. 1950~60년대 혁명영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최근 영화 중에는 <따뜻한 봄(暖春)>(2003), <따뜻한 정(暖情)>(2005)과 같이 농촌이나 가정의 훈훈한 정을 그린 영화 몇 편이 드물게 상영작에 들어갈 뿐이다.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중국의 대작 영화들은 상영작 목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북한과 중국 양국에서 영화 교류 행사가 간헐적으로 열리고 있긴 하지만, 다양한 영화들을 서로 소개하며 내실 있는 교류를 지향하기보다는 기념일 행사의 일환으로서 몇 편의 한정된 영화들을 돌려가며 상영하는 형식적인 교류에 그치고 있다.

〈표 2〉 2006~2014년에 북한과 중국에서 개최된 영화 교류 행사

연도	행사 내용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월 18일, 김일성이 주은래 총리와 태암협동농장을 시찰한 50주년을 기념하여 기념집회와 영화감상회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 6월 10일, 김일성 중국 방문 25주년을 기념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주조 중국대사관 성원들과 친선모임 마련,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영화감상회와 연회 진행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월 15일, 중국 산시영화촬영소에서 김정일에게 선물한 중국 예술영화 〈따뜻한 정〉 감상회를 평양 대동문영화관에서 진행 2월 19~24일, 북한과 중국 정부 사이의 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50주년을 기념하여 대외문화련락위원회와 문화성 청류관, 주조 중국 특명전권대사 대사관, 중국주재 북한대사관, 중국 문화부에서 각각 연회를 마련, 영화감상회를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 3월 12일, 김정일에게 선물한 중국 예술영화 〈따뜻한 가을〉 감상회 평양에서 진행 9월 10~18일, 조선영화대표단 중국 방문. 9월 11일, 베이징의 새세기영화관에서 진행된 조중외교관계설정 60주년 기념 '조선영화상영주간' 개막식에 참가 9월 26~29일, 중국영화대표단 북한 방문 9월 28일, '조중친선의 해'를 기념하여 '중국영화상영주간' 평양에서 진행
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8월 23일, 중국 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사진전시회와 영화감상회 진행 10월 21~25일, 중국인민지원군 조선전선참전 60주년 기념 '중국영화상영주간' 평양 대동문영화관에서 진행 (조선국가영화위원회와 조선 주재 중국대사관 공동 주최. 중국 혁명영화 〈상감령〉, 〈네온등 밑의 초병〉, 〈철혈대동맥〉 상영) 10월 23~27일, 중국 연변에서 '조선영화상영주간' 진행 (〈꽃 파는 처녀〉, 〈소원〉, 〈평양날파람〉, 〈형제의 정〉, 〈한 녀학생의 일기〉 상영) 11월 24일, 김정일에게 선물한 중국 TV연속극 〈모안영〉에 대한 시사회를 평양 대동문영화관에서 진행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월 2일, 주조 중국대사관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조중친선 설명절 영화감상회 마련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월 10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문화성대표단과 조선영화대표단 중국 방문, 베이징에서 진행된 '조선영화상영주간' 행사에 참가 6월 26일, 중국영화대표단 북한 방문. 6월 27일 평양 대동문영화관에서 진행된 북·중 합작예술영화 〈평양에서의 약속〉 시사회에 참가 7월 14~24일, 북·중 합작예술영화 〈평양에서의 약속〉 시사회에 참가하는 조선영화대표단이 중국 방문. 영화 시사회는 7월 16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
20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2월 12일, 광명성절 기념 영화감상회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 진달래아동기금, 중국공공외교문화교류센터, 중국 주재 아랍공보센터 공동 주최

IV. 북·중 영화 교류의 비대칭성

1. 중국 영화산업의 발달

1905년 최초의 영화 <정군산(定軍山)>으로 시작된 중국 영화는 2005년에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오늘날 중국 영화계는 미국을 넘어서서 세계 최대 영화시장과 영화산업을 구축하려는 포부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시대에 뒤떨어진 북한 영화에 관심을 기울일 여력이 없다. 중국 영화계의 야심은 중국 영화박물관(中国电影博物馆, CNFM)에서도 잘 드러난다. 베이징 동북쪽 외곽에 위치한 중국 영화박물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영화 전문 박물관으로 건물 면적이 38,000㎡에 달한다. 중국 영화 탄생 100주년인 2005년에 공사를 마치고 2007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되었으며, 2008년 3월부터는 무료로 공개되고 있다.

박물관의 전시부는 영화 역사, 영화 예술 관람, 영화 기술 관람 등 20개 전시실로 나누어 있는데, 1,500편이 넘는 영화와 450명이 넘는 제작자를 소개하는 전시부를 모두 보려면 2.9km를 걸어야 한다. 전시부 외에도 1개의 IMAX스크린, 3개의 35mm 일반 스크린, 1개의 3D 디지털 스크린 등 총 5개의 스크린이 있다. 전시부는 중국 영화가 100년 동안 거둔 성취를 시기별, 주제별, 지역별로 구분하여 전시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치되어 있다.

총 20홀의 전시실 중 '5홀 개혁개방 신시기의 중국 영화'가 근래 중국 영화의 변화를 상세하게 보여준다. 1979~2005년에 선전선동 영화에서 벗어나 다양한 장르의 영화를 지향하게 된 과정을 보여주는데, 전시실 내에서 주제가 여덟 개로 다시 나뉜다. 1) 역사 반성, 인생 직면, 2) 영화 예술의 탐색, 3) 웅대한 역사의 파노라마, 4) 대중, 생활, 실재에 근접,

〈표 3〉 중국영화박물관의 전시부 구조

1홀	영화의 발명	11홀	영화 촬영
2홀	중국 영화의 탄생과 초기 발전	12홀	영화 미술
3홀	혁명전쟁 시기의 중국 영화	13홀	영화 특수촬영
4홀	새로운 중국 영화의 창건과 발전	14홀	전통영화 특수효과
5홀	개혁개방 신시기의 중국 영화	15홀	디지털 특수효과
6홀	미술 영화	16홀	영화 녹음
7홀	아동 영화	17홀	영화 편집
8홀	과학교육 영화, 더빙 영화, 신문기록 영화	18홀	영화 현상
9홀	홍콩, 마카오 영화	19홀	영화 애니메이션
10홀	대만 영화	20홀	형형색색 영화

5) 농촌을 주제로 한 영화, 6) 소수민족을 주제로 한 영화, 7) 장르의 다양화, 8) 합작영화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1990년대 이후를 ‘장르의 다양화’와 ‘합작영화’로 규정하고 있는 점이다. 영화시장 개방 후 중국 영화는 무협, 판타지, 로맨스 등 다양한 장르의 영화로 상업성을 강화했다. 합작영화 또한 중국 영화의 질적 수준 향상과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것으로서 일본, 미국과의 합작 경험을 주로 전시하고 있다.

중국 대륙의 시각에서 중국 영화 100년 역사를 재현하면서도 홍콩 영화와 대만 영화를 통합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9홀과 10홀을 홍콩 영화와 대만 영화에 각각 할애하여 3개의 중국이 오늘날 중국 영화산업의 든든한 자산임을 보여주고 있다. 영화배우의 밀랍인형, 영화인의 사진, 사인 전시 등에서는 아예 대륙, 홍콩, 대만을 구분하지 않는다. 중국 대륙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국책영화의 전통도 소중하긴 하지만, 시장 개방 이후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홍콩 영화와 대만 영화가 쌓아온 제작 역량에 적극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다.

1993년 영화의 시장화 조치 이전에는 중국 영화 역시 북한 영화처럼 당 지도자들을 칭송하고 혁명정신을 고양시키며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국책

영화로서 ‘주선율(主旋律) 영화’가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시장화 이후 펑샤오강(冯小刚) 등 유명 감독들이 하세편(賀歲片)¹⁵⁾을 제작하는 경향이 강해졌다. 중국 영화는 1980년대에 현재의 북한 영화처럼 침체되었는데, 1993년 시장화 개혁 이후에도 최악의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다. 1979년 연 관객 수 239억 명에서 1992년 105억 명으로 떨어졌고, 미국과 중국 간에 WTO 가입 협상이 타결된 1999년에는 4억 6천만 명까지 폭락했다. 영화 제작 편수도 1990년 134편에서 1998년 82편으로 대폭 줄었다.¹⁶⁾

2001년 11월에 중국이 WTO에 정식 가입하고 영화시장을 개방한 후, 중국 영화가 급성장했다. 2001년 88편이었던 제작 편수는 2013년 638편까지 증가했다. 이로써 세계 3위 규모의 영화 생산 대국이 되었다. 그런데 중국 영화가 단기간에 급성장하기는 했지만, 국제경쟁력은 아직 높지 않다. 중국 영화시장에서 미국 영화의 위상은 매우 높은 편이다.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중국 대작 영화가 종종 등장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 영화로 높아진 관객의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중국 대륙 영화는 홍콩 영화와의 합작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러한 전략은 오히려 홍콩 영화의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 현재 중국 영화는 대륙 영화, 홍콩 영화, 대만 영화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대륙의 입장에서는 홍콩, 대만의 의지와 무관하게 ‘양안삼지(兩岸三地)’를 하나로 결집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현재 중국 영화의 제작 편수, 관객 수, 자국 영화 점유율은 인도, 미국에 이어 세계 3위이며, 스크린 수는 미국, 인도, 프랑스, 독일에 이은 세계 5위이다. 중국 영화시장의 규모는 정확한 통계가 없긴 하지만, 미국, 영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수

15) ‘명절 영화’라는 뜻으로 상업적 흥행이 최우선인 영화를 가리킨다.

16) 唐榕, “电影产业国际竞争力: 国内现状·国际比较·提升策略,” 『當代電影』(2006년 6期), pp. 10-12; 박정수, 『중국영화산업』(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p. 113에서 재인용.

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중 영화 교류에 비대칭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한 예로, 양국의 국제영화제에 초청 받는 영화와 수상작을 비교하면 차이가 두드러진다. 북한의 평양국제영화축전(PIFF)에서 다수의 중국 영화가 상영되고 주요 상을 수상하는 반면, 중국의 상하이국제영화제(SIFF)와 베이징국제영화제(BJIFF)는 상업적인 경향을 띠며 북한 영화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표 4〉 중국 영화의 제작 편수, 관객 수, 스크린 수, 자국 영화 점유율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제작 편수	330	402	406	456	526	588	745	638	618
관객 수(백만 명)	176	190	215	250	290	370	470	612	830
스크린 수	3,034	3,527	4,097	4,726	6,200	9,286	13,118	18,195	24,607
점유율(%)	55	54	61	57	56	53.6	48.5	58.7	54.5

자료: Focus 2011, *world film market trends, Marche Du Film 2011*, & Focus 2015, *world film market trends, Marche Du Film 2015*. (『한국영화연감』(2007~2015)에서 재정리)

평양국제영화축전은 1987년에 시작되어 1990년부터 격년 개최되고 있는 북한 유일의 국제영화제이다.¹⁷⁾ 짝수 해 9월에 열리며 독일, 러시아, 중국 등 세계 각국의 영화사와 유네스코,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같은 국제기구에서 영화를 출품하고 장편 예술영화 부문과 TV프로그램 영화 부문으로 나누어 수상작을 선정한다.

제10차(2006년)부터 제14차(2014년)까지 수상 내역을 보면 중국 영화

17) 처음부터 격년 개최를 목표로 했으나 1987년 제1회 축전 2년 후인 1989년에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개최하면서 1년 순연되었다. 이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거르지 않고 지속되었는데, 영화제를 통해 국가의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한승대·전영선·김용현, “평양영화축전의 성립과 그 정치적 의미에 관한 연구,” 『동아연구』, 제34권 2호 (2015), p. 31).

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 영화가 경쟁 부문에서 최우수영화상, 연출상 같은 주요 상을 수상하는 반면, 북한 영화는 몇 편이 특별상에 선정되어 구색을 맞추는 경향을 보인다. 평양국제영화축전에서 중국 영화와 북한 영화가 수상한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 평양국제영화축전의 중국 영화, 북한 영화 수상작

	중국 영화	북한 영화
제10차 (2006년)	〈태행산〉(장편예술영화 기술상) 〈따뜻한 봄〉(TV프로그램 영화 축전 조직위원회상)	아동영화 〈령리한 너구리〉(TV프로그램 영화 미술상)
제11차 (2008년)	〈집합나팔소리〉(최우수영화상, 장편예 술영화 연출상, 장편예술영화 기술상) 기록영화 〈원명원〉(축전국제심사위 원회 특별상) 〈따뜻한 정〉(축전조직위원회 특별상) 〈강북의 좋은 사람〉(특별상영상)	아동영화 〈피플새가 부른 노래〉(기록 및 단편영화 구성상)
제12차 (2010년)	〈걸어서 학교에 가다〉(최우수영화상) 단편영화 〈손〉(기록 및 단편영화 촬 영상) 〈어머니와 아들, 며느리〉(특별상영상) 기록영화 〈조선영화집 친구〉(특별상영상)	북한-프랑스 합작 〈모란봉〉(축전조직위 원회 특별상) 〈해빛 밝아라 1부〉(특별상영상) 〈내가 본 나라 2, 3부〉(특별상영상)
제13차 (2012년)	〈로인들의 집〉(장편예술영화 문학상) 〈전학삼 박사〉(장편예술영화 미술상, 정편예술영화 기술상) 〈횡산호〉(특별상영상)	북한-영국, 벨기에 합작 〈김동무는 하늘 을 난다〉 〈소원〉(특별상영상)
	북한-중국 합작 〈평양에서의 약속〉(축전조직위원회 특별상)	
제14차 (2014년)	〈나의 나무티〉(장편예술영화 연출상, 장편예술영화 음악상, 장편예술영화 남배우연기상)	만화영화 〈불씨를 찾은 아왕녀〉(기록 및 단편영화 구성상) 기록영화 〈대동강반에 일떠선 문화정서 생활기지들〉(특별상영상) 〈산너머 마을〉(특별상영상)

이에 반해 중국의 상하이국제영화제와 베이징국제영화제에서는 북한 영화를 찾아볼 수 없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북한 영화가 상하이국제

영화제나 베이징국제영화제의 경쟁 부문에서 수상작으로 선정된 예는 전혀 없다. 북·중 합작영화 〈평양에서의 약속〉은 2012년 4월 베이징국제영화제에서 처음 상영된 후, 같은 해 6월에 상하이국제영화제에 출품되었으나 어디에서도 수상하지는 못했다.

중국의 국제영화제들은 북한 영화에 지극히 무관심한 반면, 한국 영화계와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1993년 제1회 상하이국제영화제에서 영화 〈서편제〉가 감독상(임권택)과 여우주연상(오정해)을 수상한 이래 한국의 영화인이 자주 심사위원으로 초청되고 다수의 작품이 경쟁 부문에 초청되고 있다. 2006년에 광경택, 2009년 오정완, 2014년 임상수, 2015년 김희재, 김동원이 심사위원으로 참가했다. 2009년에 노형우 음악감독이 〈영화는 영화다〉(장훈 감독)로 음악상을, 2015년에는 오승욱 감독의 〈무뢰한〉이 특별예술공헌상을 수상했다. 베이징국제영화제의 경우 2011년 ‘중국 외 유명 감독과의 대화’ 행사에 객재용을 초청했으며, 2013년에 강제규, 2015년에 김기덕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했다. 2014년에는 영화 〈소원〉(이준익 감독)의 아역배우 이레가 여우조연상을 받기도 했다.

2. 교류(交流)하지 못하는 영화 교류

중국 잡지 『영화 리뷰(电影评介)』 1989년 8기(期)에는 「나는 북한 영화를 본다(我看朝鲜电影)」라는 칼럼이 실려 있다. 필자인 쟡치우(郑启五)는 막 철들기 시작한 무렵인 1960년대 초에 〈어랑천〉(1957), 〈1211 고지 방위자들〉(1963) 같은 북한 영화를 보면서 전쟁놀이에 푹 빠져 있던 시절을 떠올리며, 북한 영화를 ‘오래된 연인’에 비유한다. 쟡치우의 글은 『영화 예술(电影艺术)』 1965년 21기에 실린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북한 영화(在飞跃前进中的朝鲜电影)」라는 글에서 지적한 북한 영화의 성취를 어린 시절 보고 자란 세대의 회고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0~80년대와 달리 현재 중국에서 북한 영화는 극소수 마니아의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중국 저널 DB인 CNKI(中国知网)에서 북한 영화 관련 글을 검색해 보면, 1950~60년대 중국의 영화 잡지들에서 북한 영화 소개 글을 여러 편 발견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찾아보기 어렵다. 2000년 이후에는 〈한 녀학생의 일기〉, 〈형제의 정〉, 〈평양에서의 약속〉을 소개하는 짧은 기사 외에 연구자들의 논문을 몇 편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裴和平, 2012; 2014; 曾盼, 2014 등). 이 연구 논문들은 북한 영화에 내재된 역사 서사, ‘한(恨)’의 정서, 여성의 형상화 등에 주목하는데, 연구 대상이 〈꽃 파는 처녀〉를 비롯한 1960~70년대 북한 영화에 국한된다.

중국의 대중이 합작영화인 〈평양에서의 약속〉을 제외하면 극장에서 북한 영화를 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우며, 중국의 영화 전문 채널인 CCTV-6에서도 북한 영화가 방영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CCTV-6 편성표를 검색해 보면, 2004년 8월 21일 〈꽃 파는 처녀〉가, 2013년 2월 16일에 〈평양에서의 약속〉이 방영된 사실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중앙TV의 편성표를 보면, 2006년 1월 1일부터 2016년 8월 31일까지 중국 예술영화가 80회 방영되었다. 같은 기간에 소련 예술영화는 88회 방영되었다.

〈표 6〉 조선중앙TV의 중국 예술영화, 소련 예술영화 방영 횟수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총합
중국	0	13	3	12	1	29(8)	9	10(6)	3(2)	0	0	80
소련	0	1	1	6	1	17	17	15(2)	7(2)	18(2)	5(1)	88

자료: 통일부 북한정보포털(<http://nkinfo.unikorea.go.kr>)

주) () 안의 수는 재방영 횟수임.

중국 예술영화와 소련 예술영화가 방영된 횟수는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세부 내역에는 제법 차이가 있다. 중국 예술영화의 경우 2011년

한 해에만 29회가 몰려 있고, 2015년 이후에는 방영이 끊긴 상태다. 재방영 횟수를 보면 2013~2014년에 재방영 비중이 높다. 상영작은 〈상감령〉, 〈네온등 밑의 초병〉 같은 옛날 영화가 대부분이고 최근 영화로는 무술 영화인 〈엽문〉(2008) 정도가 눈에 띄는 편이다. 구소련 시절의 예술영화를 방영하는 것보다 중국 예술영화를 방영하는 데 상대적으로 제약이 더 많은 게 아닌가 싶다.

조선중앙TV의 편성 의도를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TV의 영화 방영에서도 영화 교류의 비대칭성이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점이다. 영화 전문 채널로서 하루 종일 영화만 방영하는 중국 CCTV-6에서 북한 영화를 볼 수 있는 확률보다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의 국영방송인 조선중앙TV에서 중국 영화를 볼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 양국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변화 이전에 영화라는 문화콘텐츠의 양적, 질적 차이가 문화 교류의 양상을 결정짓는 면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북·중 관계의 변화가 양국의 문화 교류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다. 상업화되지 않은 북한의 매체는 정치적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2015년과 2016년에 중국 영화 방영이 한 차례도 없었던 것은 양국 관계의 경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2014년 7월 중국의 시진핑(习近平) 국가주석이 관례를 깨고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 것은 북한에 큰 충격을 주었다.¹⁸⁾ 2015년 10월 류원산(柳元山) 정치국 상무위원이 방북하여 관계 회복의 기미를 보였으나, 같은 해 12월에 북한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공연이 돌연 취소되었고, 북한의 4차 핵실험(2016년 1월 6일)과 5차 핵실험(2016년 9월 9일) 이후 냉각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¹⁸⁾ 2014년에는 시진핑 방한으로 인해 북·중 우호조약 체결 기념일(7월 11일)과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기념일(8월 1일)에 문화 교류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이기현 외,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16), p. 38).

중국에서는 극장이나 TV뿐만 아니라 DVD판매점을 통해서도 북한 영화를 접하기가 어렵다. 베이징도서빌딩(北京图书大厦), 왕푸징서점(王府井书店)과 같은 대형서점의 DVD판매점을 살펴봐도 최신 미국 영화와 대륙, 홍콩, 대만 영화가 매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6년 6월 현지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베이징의 DVD판매점들에서 정식으로 구입할 수 있는 북한 영화는 〈꽃 피는 처녀〉가 유일하다. 해외 고전영화로 분류되어 일본의 60~70년대 영화들과 함께 비치되어 있으며 가격은 20위안(약 4,000원)이다.¹⁹⁾

결국 ‘조선영화 상영주간’ 행사를 찾아가는 수고를 하지 않는다면, 중국의 대중이 북한 영화를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매체는 인터넷이다. 중국 최대 검색엔진인 ‘바이두(百度)’에서 북한 영화를 검색하면 8편이 나올 뿐이고, 이 중 2006년 이후 제작된 영화는 〈한 녀학생의 일기〉한 편에 불과하다.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쿠(优酷)’와 ‘투도우(土豆)’에서는 더 많은 북한 영화를 중국어 자막과 함께 볼 수 있는데, 〈형제의 정〉 외에는 대부분 2006년 이전에 제작된 영화들이다. ‘탐색조선 블로그(<http://blog.sina.com/explorekorea>)’와 같이 북한 영화를 비롯하여 북한과 관련된 자료만 집중적으로 수집하는 개인 블로그에서도 몇 편의 영화를 볼 수 있다.

중국의 대중이 북한 영화를 통해 북한 사회에 대해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은 만큼이나 자국 영화에서 북한의 이미지를 접할 기회도 거의 없다. 중국 영화보다 오히려 미국 영화에서 북한과 관련된 것들이 등장하는 경우를 발견하기가 수월하다. 미국 영화에서는 북한을 엿기적인

¹⁹⁾ 대형서점에서 북한과 관련된 책을 찾아보는 것도 어렵다. 조선족에 대한 책은 많지만, ‘조선전쟁’이 아니라 현재의 북한 사회에 대한 책으로서 구입할 수 있는 책(재고가 있는 책)은 기자가 쓴 감상기(杜白羽, 『朝鮮印象』, 人民日报出版社, 2014)가 하나 있을 뿐이다.

악당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2010년 이후 영화만 봐도 <레드 던(Red Dawn)>(2012)에서 북한군이 워싱턴 주를 점령하며, <백악관 최후의 날(Olympus Has Fallen)>(2013)에서는 북한 테러리스트들이 백악관을 초토화시키고 대통령을 인질로 잡는다. <월드 워 Z(World War Z)>(2013)에서는 2,300만 명의 이를 하루아침에 모두 뽑아 아무도 좀비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놀라운 국가로 설정되기도 한다. 상업적인 미국 영화와 달리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것을 금기시하는 중국 영화에서 북한이 언급되거나 북한 사람이 주요 인물로 등장하는 경우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콘텐츠 중에 영화에 국한해서 본다면 중국은 현재의 북한에 관심이 없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2016년에도 중국의 대중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북한 영화는 <꽃 파는 처녀> 밖에 없으며, 중국의 대중 입장에서 보면 ‘조선전쟁’과 ‘꽃 파는 처녀’가 여전히 북한을 대표하는 이미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북한과 중국의 영화 교류가 양국의 모든 문화 교류를 대표하는 전형성을 지닌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중국 내 순회공연이 여전히 활발한 교예, 가극 분야는 영화와 상황이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방식의 문화 교류 중에서 필름을 주고받기만 하면 되는 영화 교류는 사실 교예단, 가극단의 방문 공연보다 비용도 적게 들고 절차도 간단한 편이다. 그러나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상 교류의 조건이 훨씬 까다롭다. 영화는 메시지 전달력이 강하고 대자본이 투입되는 매체이므로 평등한 교류보다 우열에 따른 일방향 수출·수입 관계가 이루어지기 쉽다.

북한과 중국의 영화 교류는 앞으로도 지속되겠지만, 교류의 비대칭성이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교류(交流)’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처럼 양국의 영화가 서로 섞여서 흐르거나, 소통하는 일은 앞으로도 벌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만약 북한 사회가 좀 더 개방적으로 바뀐다면, 양국의 영화 교류는 과거 미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의 관계와 같이 중국 영화를 북

한이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경향이 강해질 가능성이 크다.

V. 결론

2006년 이후 북·중 예술영화 교류는 양적으로 특별히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았다. 조중친선의 해인 2009년과 항미원조 60주년인 2010년에 양국의 영화 교류 행사가 예년보다 늘긴 했지만, 이례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영화 교류를 양적으로 평가해서 증가와 감소를 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선 ‘영화 교류’라는 말 자체가 영화산업과 영화시장이 발달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매우 낯선 개념이다. 북·중 영화 교류, 남북 영화 교류와 같이 영화시장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가 한 축일 때에만 의미가 있는 개념이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등의 여파로 남북 영화 교류가 중단된 데 비하면 북·중 영화 교류는 큰 문제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양상을 보면 의미 있는 교류라고 말하기 어렵다. 정치적 명분에 따라 영화 교류가 지속되어야 하므로 양국의 기념일마다 옛날 영화를 반복 상영하는 방식으로 교류 행사가 진행될 뿐이다. 합작영화가 시도되기도 했지만, 60여 년 전의 항미원조 경험 외에는 공유할 만한 지점이 거의 없다. 오늘날 중국의 대중에게는 과거 혈맹 관계였던 북한의 영화보다 미국 영화가 훨씬 익숙하고 큰 즐거움을 줄 것이다.

이 연구는 북·중 영화 교류에 국한된 것으로서 문화 교류 전반에 대한 평가는 추후 확장된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가극단, 교예단 등의 교류는 영화 교류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과거의 틀에 갇힌 형식적 교류’라는 특징은 공유할 가능성이 크다. 2010년

이후 북한 가극단의 중국 순회공연이 증가한 것은 ‘홍루몽’²⁰⁾이나 ‘량산 백과 축영대’ 같은 중국의 옛날이야기를 가극화하여 공연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공연되는 북한의 가극은 여전히 ‘꽃 파는 처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문화 교류 전반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은 분석이 필요하며 이 연구의 결론은 영화 교류에 국한되어야 마땅하다.

이 연구는 접근 가능한 자료들을 모두 검토하고 중국 베이징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북·중 영화 교류의 객관적 실체에 최대한 접근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북한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지극히 제한적인 점이 연구의 걸림돌로 끊임없이 작용하였다. 북한 쪽의 변화에 대해서 그 양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더라도 원인에 대한 논의는 추측에 그칠 수밖에 없다. 중국 역시 북한에 비하면 나은 편이지만 공개된 자료가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 영화 교류뿐만 아니라 북·중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자료의 제약을 극복하는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의 결론을 영화 교류에 국한한다 해도, 예술영화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기록영화를 배제하고 있는 점을 한계로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는 기록영화가 예술영화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 내에서 기록영화가 지니는 중요한 위상과 달리 중국과의 영화 교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므로 이 연구에서 기록영화를 배제한 것이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으리라 본다.

■ 접수: 2017년 5월 1일 / 심사: 2017년 5월 4일 / 게재확정: 2017년 6월 1일

20) 가극 ‘홍루몽’은 ‘꽃 파는 처녀’ 못지않게 북·중 문화 교류에서 우호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다. 1961년 김일성 주석이 중국을 방문하여 가극 ‘홍루몽’을 관람했고, 1963년 중국은 영화 <홍루몽>을 김일성에게 증정했다. 2009년 ‘조중 친선의 해’에 김정일이 재창작을 지시한 후 2010년 중국에서 37회 순회공연을 진행했다(이기현 외, 앞의 책, pp. 72~73).

【참고문헌】

- 강내영. “과잉과 생략의 전시내러티브: 중국영화박물관 전시이데올로기 분석.” 『영화연구』 47호 (2011), pp. 7~59.
- 권현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파주: 창비, 2013.
- 다이시지에(戴思杰). 『발자크와 바느질하는 중국소녀』. 이원희 역. 서울: 현대문학, 2005.
- 민병욱. 『북한 영화의 역사적 이해』. 서울: 역락, 2005.
- 박정수. 『중국영화산업』.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신형옥·김용범. “북·중 문화교류를 통해 본 현 단계 남북한 문화교류의 진단과 평가: 단일 극 양식의 공연예술 교류를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15권 2호 (2011), pp. 195~216.
- 안지영. “북한 영화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27권 1호 (2015), pp. 243~277.
- 이기현·전병곤·이 석·박동훈. 『한중수교 이후 북중관계의 발전: 추세분석과 평가』. 서울: 통일연구원, 2016.
- 이명자. 『북한 영화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a.
- _____. “북한영화.” 영화진흥위원회 편. 『한국영화연감 2007』.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b, pp. 148~155.
- _____. “2010년 북한영화 개관.” 영화진흥위원회 편. 『한국영화연감 2011』.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1, pp. 335~346.
- 이우영. “2014년 북한영화 개관.” 영화진흥위원회 편. 『한국영화연감 2015』. 부산: 산지니, 2015, pp. 256~265.
- 전영선·김지니. “북한의 대외문화교류 정책과 북·중 문화 교류.” 『중소연구』 118호 (2008), pp. 123~148.
- 최명해. “1960년대 북한의 대중국 동맹딜레마와 ‘계산된 모험주의.’” 『국제정치논총』 제48집 3호 (2008), pp. 119~148.
- 최척호. 『북한 영화사』. 서울: 집문당, 2000.
- 한승대·전영선·김용현. “평양영화축전의 성립과 그 정치적 의미에 관한 연구.” 『동아연구』 제34권 2호 (2015), pp. 1~38.
- 히라이와 슌지(平若俊司). 『북한·중국관계 60년: ‘순치관계’의 구조와 변용』. 이종국 역. 서울: 선인, 2013.

- 韩昌熙. “在飞跃前进中的朝鲜电影.” 『电影艺术』 (1964年 Z1期), pp. 117~119.
- 郑启五. “我看朝鲜电影.” 『电影评介』 (1989年 08期), p. 17.
- 唐榕. “电影产业国际竞争力: 国内现状·国际比较·提升策略.” 『当代电影』 (2006年 6期), pp. 8~14.
- 裴和平. “革命的罗曼史: 朝鲜电影中的历史合法性叙事.” 『新疆艺术学院学报』 (2012年 03期), pp. 77~80.
- . “朝鲜电影中的‘恨’文化情结.” 『北京社会科学』 (2014年 06期), pp. 43~48.
- 曾盼. “朝鲜电影中的女性形象解析.” 『戏剧之家(上半月)』 (2014年 03期), p. 311, p. 301.

월간 『조선예술』. 문학예술출판사 (2007~2016).

연간 『조선중앙년감』. 조선중앙통신사 (2007~2015).

연간 『한국영화연감』.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2013).

연간 『한국영화연감』. 부산: 산지니 (2014~2015).

중국영화박물관 홈페이지 <http://www.cnfm.org.cn>

평양국제영화축전 홈페이지 <http://www.pyongyanginternationalfilmfestival.com>

상하이국제영화제 홈페이지 <http://www.siff.com>

베이징국제영화제 홈페이지 <http://www.bjiff.com>

North Korea-China cultural exchanges not being exchangeable: Focusing on art film exchanges since 2006

Kim, Sung-eu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North Korean art films were very popular in China in the 1970s, but their popularity was exceptional, originated from the process of resolving the conflicts of the two countries during the Cultural Revolution. Today, North Korea-China cultural exchanges are continuing in various fields besides films. There are two conflicting claims that cultural exchanges are increased due to North Korea's increased dependence on China and that they are decreased due to the development of Chinese culture industry.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North Korea-China cultural exchanges, focusing on art film exchanges since 2006. During this period, the production of North Korean films was declined unprecedentedly, while the Chinese film industry was greatly developed. In this asymmetrical situation, film exchanges are on the tradition of screening old films on anniversaries and diplomatic events of both countries. Especially, from the standpoint of China, there is no reason to be interested in outdated North Korean films. American films are much more familiar and popular to the people of China today than those of North Korea. North Korea-China film exchanges will continue formally, but it is unlikely that the asymmetry of exchanges will be reduced.

Key words: North Korea-China cultural exchanges, North Korea-China art film exchanges, North Korean art films, China film industry, asymmetry of exchanges.

김성은(Kim, Sung-eun)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동국대학교와 한신대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다. 주요 연구로 “한국 사회과학의 전문화와 대중화”(2015), “문화산업론과 문화산업연구의 계보학”(2015), “책에 대한 학제적 연구의 필요성과 방안”(2017) 등이 있다.